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8일 월요일 음 11월 14일 (6물)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0°C. 낮 최고기온은 14-17°C로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data for Jeju, Seongsan, Gosa, and Seogwi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 for Jeju.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월드뉴스

폼페이서 고대 로마 간이 식당 유적 발굴

음식물 묻은 항아리 '눈길'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고대 로마 시대 서민들이 요리하던 간이 식당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폼페이에서 발굴된 거리 간이 식당 유적.

폼페이 유적을 보존·관리하는 폼페이 고고학공원은 2천 년 전 거리 음식을 팔던 간이 식당 유적을 발굴해 26일(현지시간) 언론에 공개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간이 식당은 주로 하층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굴된 유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색깔과 이미지 형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벽화다.

폼페이 고고학공원 책임자인 마시모 오산나 박사는 "간이 식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굴돼 고고학·지질학·화산학 등의 학문적 연구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판매대로 집착되는 곳의 벽면에는 오리나 닭, 돼지, 양, 소, 돼지, 닭을 타는 바다의 님프(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 또는 요정) 등이 그려져 있다.

특히 음식 잔여물은 고대 로마인들이 주로 어떤 음식을 소비했는지를 파악할 중요한 단서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선과 고기를 넣어 만든 '파에야' 류와 새끼염소, 돼지, 소, 닭, 양, 양을 갈아 넣은 와인 등 당시 먹던 음식의 잔재가 묻은 여러 도기 항아리도 발굴돼 눈길을 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백록담



진선희 교육문화체육부장

2020년 역병이 일개운 '함께'라는 가치

"아! 탁락(吒囉)은 고장의 백성이 이런 부진(不辰)한 때에 태어나서 기근을 거듭 당한 지 이제 3년째 이르고, 게다가 혹독한 역병을 만나 열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고 있다."

아했다. 임금은 애도한다. "가엾은 우리 백성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건만, 하늘이 어찌하여 이처럼 혹독하게 재앙을 내리는가?"

300여 년 전 제주에는 아득히 먼 시절이고, 현대의학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질병 치료도 수월해졌다. 하지만 역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현실은 그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늦봄 지나 여름이 되면 기세가 확 꺾일 줄 알았다. 불행히도 겨울 들어 기세등등해질 거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았다.

국 우한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지역사회의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300여 년 전 제주도는 제주도가 생산하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지면이나 인터넷으로 마주했다.

초반엔 방역 당국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거셀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설 연휴 첫날에 제주도지사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현재의 상황은 더 엄중해졌다. 일상을 의도적으로 멈추라고 하는 이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국내에서 중

개'다. 감염병 시국의 거리두기로 별이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이들과의 생활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체가 새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펴는지가 중요하다. 지난달 제주도지사의 새해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그 일개가 드러났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제주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100억 규모 문화예술복지기금 조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열린마당

제주 경제 버팀목, 제주감귤 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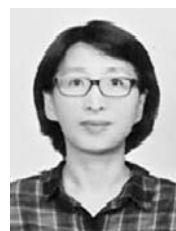


김영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팀장

제주 경제 버팀목 감귤 가격지지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유통업계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

일인 제주 감귤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으로 발주물량이 대폭 감소했고, 전국 도매시장 도매법인에서도 구매 수요가 줄어드는 등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알아보기



김수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체계는 대부분 강물 등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투수성이 높은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수의 부존과 산출이 양호해 용수공급량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정용 568원, 영일용 2375원, 골프장용 2489원) 상수도 대비 지하수의 부과 단가는 13~24%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인 경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토출구경에 따라 월 5000원~4만원만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는데, 2019년도 시설 농업용수 사용량은 연 707만t이며, 원수대금으로 1억 3740만원을 부과하여 1t 당 단가는 19원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타 시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최상위 지하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지하수의 개발·이용·보존·관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이처럼 상수도 부과요금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하수 남용이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 이용 가능한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상수도 요금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동시에 빗물, 지표수, 재처리수 등 대체수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용수를 포함한 모든 지하수 이용자들은 한정된 청정 지하수 자원을 미래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지하수를 소중히 아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Jeju Hallyeong, featuring domestic products and agricultural services.

Advertisement for Hanlim Jeongmyo, offering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Jeju Jeongmyo, featuring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Jeju Jeongmyo, featuring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